

# 열린교육의 철학

## Philosophy of Open Education

한 용 진\*

Hahn, Young-Jin

### 1. 머리말

오늘날 세계 각국은 21세기의 문명사적 변화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는 인식하에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각국은 정보화된 지구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발전전략으로서 교육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교육지표도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을 설정하여 1997년부터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은 교육방법의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열린교육 체제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유인중, 1997)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1986년 몇몇 사립초등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된 열린교육이 이제는 교육청 수준에서도 지원받는 본격적인 교육운동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열린교육은 더욱 확산되겠지만, 자칫 열린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철학없이 수업방법적인 기술만 도입하여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어 일률적으로 전국에 확산·보급하는 것은 오히려 우려되는 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열린교육에 대한 교육철

학적 논의보다는 실천적 측면의 교수방법에 치중해 온 것이 현실이기에, 이 글에서는 열린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적 논쟁점들을 통해 거꾸로 열린교육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열린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철학적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열린교육의 철학적 논쟁점

#### 1) 인문주의적 전통: 교육목적론적 측면

열린교육은 전통적 인문주의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 경험주의적 교육으로 이행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 일반적 성격은 인간본성 및 아동의 지적 호기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낙천적이며, 미리 목적을 규정하기보다 유동적이며 과정상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열린교육에서는 종종 내용의 문제(problem of content)보다는 절차적·형식적·방법적인 관심하에 과정의 문제(problem of process)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약 열린교육을 어떤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열린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고민이 생긴다. 물론 열린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목적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아동의 삶이란 어떤 결과를 위해 준비되고 희생되는 도

\* 정희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구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here and now)에서의 삶이 중요할 뿐이다. 하지만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즉 어떤 경험이 다른 경험보다 더욱 교육적으로 가치있다고 결정되는 「준거」가 무엇인가? 열린교육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자기비판의 준거들이 없거나 허약하다. 따라서 교육운동으로서 열린교육은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분명한 도구가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이 준거로서의 교육목적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린교육의 본래 가치나 신념,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내용목표가 없는 것이 일관성있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실상 위와 같은 유형의 열린교육 비판은 곧 진보주의 교육 전반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되어 있다. 즉 어린이와 그의 발달 자체에 강조를 두다 보니 유기체의 성장 목적, 즉 어떠한 인간을 지향해 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인문주의적 교육전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열린교육이 지닌 과정지향적 성격은 교육적 이상과 바람직한 인간상을 상실한 것이며, 이같이 교육목적을 두지 않는 교육은 결코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2) 비판이론적 평등주의: 사회혁신적 측면

오늘날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학교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며 「대안학교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안교육의 실천이념은 크게 학교 내에서의 열린 교실 운동을 통한 「열린학습모형」의 대안교육과 교실 밖의 학교 및 사회의 민주화와 맞물린 「사회개혁모형」의 대안교육이라는 두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허승희, 1996). 우리나라에서의 열린교육은 위의 두 대안교육 모형 중 현재의 제도교육 내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을 찾아 보려는 「열린학습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열린교육은 전교조 운동을 통해 나타난 「참교육」과는 어느 정도 구분되며, 오히려 서울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새물결운동」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열린교육의 뿌리가 되는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체제유지적이기 보다는 사회혁신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단지 학교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접근이 강조되면서 열린교육과 사회개혁사상 간의 관계는 직접적이기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변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루소의 낭만적 자연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관련되며, 페스탈로찌의 신인문주의 역시 개인의 조화적 계발과 인격적 도야를 우선시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사회혁신을 꿈꾸고 있었다. 즉 열린교육의 이론적 배경에는 전체주의적 확실성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지만, 오늘날의 열린교육은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이 점차 전문 교육이론의 교육실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전까지의 사회개혁적이고 비판적인 성격보다 교육현장에서의 아동심리에 입각한 교수방법론이나 시설 등에 주로 관심을 갖고있다는 데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사회혁신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열린교육운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전망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계급적 평등을 주장하는 급진적 비판이론가들로부터, 단지 열린교육이 교실 내의 미시적인 교육과정 개혁에 치중하는 것을 경계하며 교수활동의 도덕적 측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온건한 교수윤리학자들까지 폭넓게 퍼져있다. 즉 미국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열린교육의 한 조류인 경영기술적 접근, 혹은 기술공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도 대부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 3) 자본주의적 경제논리: 학습효율성 측면

열린교육 논쟁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수학습의 효율성 측면이다. 이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교육 내적 효율성으로 학문적 기준(academic standard)을 문제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 외적 효율성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잘 부합되는 인간양성과 관련되어 있다. 1975년을 전후하여 영국에서 나타나는 열린교

육에 대한 비판들은 중등·고등교육 분야의 지적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인문주의자들의 주장과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편하려는 경제계의 압력이 결합된 형태가 주종을 이루었다(임재훈, 1994; 50). 이 두 관점은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교육관의 보수화를 강화시켜 주었다.

사실 영국의 비형식교육은 1967년에 발표된 플라우덴 보고서(Plowden Report)를 통해 미국과 독일의 초등교육개혁에 영향을 주며 급속히 외국으로 확산되었지만, 이 보고서에 대한 반대 입장의 비판문서(Black Paper<sup>1)</sup>; 정부의 현행 제도나 정책에 대해 비판한 보고서)들이 1969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러한 비판문서들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존재해왔던 열린교육운동에 대한 보수 세력의 입장을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해 주며, 열린교육 지지자와 반대자들간에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대처 수상의 보수당 정권하에서 영국은 교육법을 개정하여 종래의 교육 분권화와 교사 및 학교의 자율권을 축소하고 교육의 국가적 통제도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도 1980년대 들어 열린교육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허승희, 1996). 열린교육이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이같이 위축되게 된 것은 학교교육, 특히 초등교육이 어린이들에게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 사회질서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열린교육의 통합교과적인 수업방식은 결국 대학에서의 학문연구의 질을 저하시켜 국가간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관계가 깊다.

이미 1976년 베네트의 연구를 통해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학급보다 전통적인 학급에서 아동의 학습상 진보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되면서 학습 효율성 문제는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sup>2)</sup> 그러나 어느 쪽의 학습효율성이 더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문적 효율성의 추구는 자칫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해 줄 뿐이다. 더욱이 미소 냉전체제가 끝나자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국가간 무한경쟁의 논리가 교육영역에도 그대로 관철되게 되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에 적합한 인력양성이라는 경제논리가 교육정책의 궁극적 임무로 강요되면서, 열린교육은 인간중심적, 평등지향적 교육보다 특별한 계층의 요구나 이익에 부합되는 경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 3. 열린교육의 철학

#### 1) 인간관과 교육목적론

어떠한 인간관을 설정하는가에 따라 교육관은 달라지게 된다. 현대의 물질주의적 인간관은 인간의 보편성과 영원성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기에 교육목적보다는 교육의 과정을 중시한다. 열린교육은 학습자의 심리적 기초에 토대하여 흥미와 관심(interest)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interest 존중이란 학습자에게 이익(interest)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교육(education)은 수업(instruction)과 동의어가 아니다. 즉 열린교육이 제대로 교육되기 위하여는 바로 인간 전존재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하여 인간 전존재를 발달시키는 작업이 되어야 하며, 수업효율성이나 기술공학적 접근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1) C. B. Cox and A. E. Dyson (eds), *Fight for Education: A Black Paper*, London: Critical Quarterly Society, 1969, \_\_\_\_\_, *Black Paper Two*, London: Critical Quarterly Society, 1969, \_\_\_\_\_, *Black Paper Three: Goodbye Mr Short*, London: Critical Quarterly Society, 1970과 C. B. Cox and R. Boyson (eds), *The Fight for Education: Black Paper 1975*, London: Dent, 1975, \_\_\_\_\_, *Black Paper 1977*, London: Maurice Temple Smith Ltd., 1977 등이 있다.

2) 열린교육 효과성 연구는 보통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베네트가 1980년에 다시 시도한 같은 연구에서는 두 교실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호르비츠의 열린교육 효과성 연구(1979)는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열린교육이 우월성을 보이며, 학문적 성취에 있어서는 두 입장이 팽팽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열린교육이 학습 결과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재훈, 1994; 52-53)

수단일 뿐이다. 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흥미와 관심은 「필요조건」일 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인간은 신력(神力:divine power)을 지닌 최상의 창조물로 인간의 신체적 본성은 질료의 세계에 관계되며, 생활력은 식물에 관계되고, 감각의 문제는 동물에 관계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은 신에 관계되어 있다(로이 월킨슨, 1997; 47). 즉 인간은 자연이나 우주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소우주로, 인간의 물질적·식물적·동물적·신적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발달시켜야 한다. 이 때 열린교육은 별도의 교육목적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 2) 열린교육의 지식론

사람들은 열린교육의 「절차적 열림」(procedural openness; 탐구방법 혹은 분위기의 열림)에는 쉽게 동의하지만,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까지도 가져야 한다는 「규범적 열림」(normative openness: 내용의 열림)에 대하여는 입장이 다르다. 즉 학교는 교육내용을 통해 사회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열린교육은 때로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화가 개인의 감수성을 저해하기에 열린교육이 추구하는 자율성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화의 내면적 조건이 「동일시」이며, 그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조건이 「사회적 신뢰」라고 할 때, 열린교육 자체가 교사와 학습자 상호관계를 중시하고, 이들간의 사회적 신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화 기능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열린교육에 있어서 사회화의 내용으로 무엇을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전통과 개혁의 조화라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측면에서 시간적 역사 의식과 공간적 상황감각을 갖출 수 있는 핵심적 내용으로 기초를 다지는 일이 중심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 3) 열린교육의 가치론

잘못된 교육은 인간의 생명력(vitality)을 파괴한다.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어린이를 직업으로 안내하거나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의 과업은 아니다. 과학이 도덕성을 앞지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의사결정의 기준과 개념은 필수적이다. 오늘날 열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가치중립적 사고를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주의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적 법칙을 찾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서 언제나 참인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며, 동서양 교육의 인문주의적 전통이 지향하는 현인(賢人), 이성인(理性人:homo sapiens) 등 「교육받은 인간」(the educated man)은 주어진 현실세계 안에서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역사적 의식인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열린교육이 개인의 극단적 자기선택과 도전의 권리에만 주목한다면, 이상적 인간상과 궁극적 가치추구를 전제하는 교육이 오히려 「닫힌교육」이 될 수도 있다. 진정한 교육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힘들을 인식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윤리적 힘, 즉 삶의 가치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눈을 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4. 맺음말

열린교육의 발전은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되기에 위의 철학적 논쟁점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구현을 목표로 하는 열린교육이 학교교육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열린교육은 그 자체 현행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교육일 뿐이다. 외국의 사례들은 비형식 교육이나 자유학교운동이 대중 교육의 주류에서 벗어나 의무교육제도에 적용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대안학교로서 설립되고 있음을 보여주

기도 한다.

결국 열린교육은 학습자 자신이 선택한 교육 활동을 추구한다는 「자유 의 원리」와 교사는 교육 가능성이 풍부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환경 의 원리」, 학습자들의 흥미에 기초한 「개별화 수업의 원리」,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는 서로 존 중해야 한다는 「존중의 원리」 등을 들고 있는 데, 이러한 원리의 실현과 그 운영의 묘를 살리 는 것은 교재나 학습자보다 교사에게 더 달려있 다. 즉 열린교육의 성패는 교사 개개인의 교육 에 대한 자기 철학에 좌우되며, 이 때 교사란 단지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에 관계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라 하겠다.

Education: A Speculative Essay". B. Spodek & H.J. Walberg(eds), *Studies in Open Education*, New York: Agathan Press. 1975.

### 참 고 문 헌

1. 로이 월킨슨.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론』. 고 려대교육사철학연구회 옮김. 서울: 내일을 여 는 책. 1997.
2. 안신국. 「교육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본 열린 교육의 이론적 근거연구」. 청원: 한국교원대 학교. 1997.
3. 유인중. 「초등교육 새물결 운동」. 고려대교육 사철학연구회 편. 『새로운 교육의 탐색』. 서 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4. 임재훈. 「영국 초등학교의 열린교육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5. 한국열린교육연구회 · 한국초등교육학회 공편, 『열린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1994.
6. 허승희. 「우리나라 열린교육운동의 동향과 과 제」. 한국교육연구소 세미나. 1996. 7. 14.
7. 데이비드 니버그 엮음. 『열린교육의 철학』. 심 성보외 공역. Nyberg, D.(ed). *The Philosophy of Open Education*. (1975). 서울: 양서원. 1994.
8. Featherstone, Joseph. "Relevance to the Am- erican Setting". Nyquist & Hawes. *Open Edu- cation*, New York: Bantam Books. 1972.
9. Macdonald, James B. "Perspective on Open